

피의자 박근혜...3野·비박 ‘탄핵’ 급물살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박대통령 ‘검찰수사 거부’ 반발
야 3당, 대표 회담 ‘탄핵’ 본격화
여 비주류, 탄핵·출당 조치 요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다.

〈관련기사 2·3·4·5·6·21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실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밝혔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함에 따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씨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정경국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차라리 헌법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직접 조사 요청에



옛 도청앞 분수대 햇불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도청 앞 분수대에서 햇불을 들고 열었던 ‘민주대성회’가 재현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절 응하지 않고 종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정치권의 탄핵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도록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했다. 야 3당은 이번 주 대표 회담을 열어 탄핵 논의를 본격화한다.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 등 80여명도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오는 26일 제5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이후 36년만에 ‘민주대성회’

옛 도청 분수대에 햇불 밝혀
광주 10만·전남 1만6천 촛불

‘바람’이 불자 촛불은 햇불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광주에 10만 개의 촛불과 함께 햇불이 등장했다. 햇불이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 1980년 5월 이후 36년 만이다.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1만6000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일부 여권 인사의 촛불 편파 발언에 성난 시민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광주·부산·대

구·대전·제주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100만 촛불’로 밤을 밝히게 밝혔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제4차 촛불집회와 ‘민주대성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5·18 민주광장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금남공원까지 모두 10만명(경찰추산 1만9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1991년 5월 10만 명이 모인 ‘박승희양 분신사망’ 당시 금남로 노제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된 이

날 집회는 1980년 5월 광주 대학생과 시민이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옛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햇불을 들고 진행했던 ‘민주대성회’를 재현한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부터 청소년, 종교인, 여성, 노동자, 공무원 등의 자유발언 위주로 진행됐다. 이어 공동대표단의 시국선언문 낭독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시민들의 자발적 환경정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오후 8시에 옛 전남도청 분수대에 70여 개의 햇불이 불타오르자 시민들은 일제히 촛불과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며 ‘박근혜는 하야하라!’를 외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 의예과 373점
조선대 의예과 370점
‘불수능’ 지원 가능점수 하락

2017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인문계열에 지원하려면 383점, 자연계열의 경우 363점은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광주지역 고교 진학부장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7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남대 의예과 지원 가능 점수도 373점, 조선대 의예과는 370점 등으로 전년도(전남대 383점, 조선대 378점)보다 낮아졌다.

광주시교육청 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20일 광주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분석 결과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주요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발표했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의 경우 국·수·영·탐구 영역 400점을 기준으로 인문계열 383점, 자연계열은 363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주요대학 지원가능 점수
(광주진학부장 협의회·원점수기준)

대학	학과	점수
전남대	의예과	373
	치의학과	368
	수의예과	343
	영어교육과	350
조선대	경영학부	342
	의예과	370
	치의예과	366
	간호학과	321
조선대	영어교육과	321
	교육학과	305

전남 AI 확산 초비상 ▶6면
KIA 미래 거포 최원준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